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한 양악과의  
비교학습지도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양 숙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한 양악과의  
비교학습지도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양 숙

# 인 준 서

임양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한 양악과의 비교학습지도 연구

임  
양  
숙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 논문 개요

이 연구는 중학교에서의 국악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수업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양악과의 비교학습을 통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들을 통해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06년 이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음악교육과 국악교육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고찰하였고, 학습지도안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10학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 하여 크게 세 가지, 각각 3차시로 구성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도안의 방법은 양악과의 비슷한 부분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해와 흥미를 이끌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징 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학습지도안은 동일한 악기분류법에 따라 같은 군에 속하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비교, 학습하여 국악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학습지도안은 오선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정간보의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정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학습지도안은 제재곡 “너영나영”의 학습, 특히 리듬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변형한 후, 제재곡과는 다른 느낌의 곡 만들기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도 국악에 대한 생활화를 이끄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제시된 학습지

도안에서는 각각의 영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영역의 통합적 지도,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적인 면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악교육을 할 때에는 기보법에 있어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는 등의 개량된 국악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국악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음악교육을 행할 때 교사는 악곡의 종류를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 학생들에게 국악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양악과 국악의 비교학습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도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과서의 국악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악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실제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악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바란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한계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한국 국악교육의 변천과정 -----	5
2. 제7차 교육과정 중 국악부분 -----	9
3. 중학교 1학년 국악교육 -----	16
III. 학습지도안 -----	18
1. 학습지도안의 계획 및 유의점 -----	18
2. 국악기과 양악기의 비교학습을 통한 학습지도안 -----	24
3. 정간보와 오선보의 비교학습을 통한 학습지도안 -----	37
4. 제재곡 "너영나영"을 통한 창작 학습지도안 -----	50
IV. 결론 -----	62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교육은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정서함양에 힘써야하는 정서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양악<sup>1)</sup>이 국악<sup>2)</sup>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양악에 대한 교육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 원인은 일본의 통치 하에 있던 시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한국의 민족의식을 소멸시킬 의도로 국악 보다는 일본의 노래와 서양의 가곡 및 민요들을 가르침으로써 전통 음악의 전승과 발전을 막고, 학생들 사이에 조성되어 있던 애국적인 음악풍토를 흐려 놓기를 의도하였다. 19세기 후반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미국 출신 선교사들의 찬송가 지도로 시작된 한국의 일반학교 음악교육은 일제치하에 있던 시기를 지나 광복 후, 음악계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재건하는데 주력하는 대신 양악에만 몰두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음악교과를 살펴보면 국악의 비중이 약50%를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시절 양악위주의 교육을 받았었던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국악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던 세대로서 교사부터도 국

---

1) 이후부터는 서양음악을 양악이라고 칭한다. 서양음악의 선법과 리듬으로 이루어져있는 음악을 서양음악, 즉 양악으로 한다.

2) 이후부터는 한국음악을 국악으로 칭한다. 분석 시 범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서 국악은 정악과 민속악을 포함하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의미하고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서양기법의 음악은 국악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악에 대한 이질감이 높아 학생에게 국악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 국악에 대해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대학에서조차 국악전공을 제외하고는 국악개론이나 국악감상 정도만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것이 전부이므로 이는 인식과 실천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이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의 문화인 국악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교육은 분명 어떠한 분야보다 앞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답습의 형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실제 세계와의 연계성이 자연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음악과의 목표 중의 하나인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해야함은 물론, 학교 밖의 세계와도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음악계에서 불고 있는 국악과 양악을 접목한 크로스오버 곡들의 연주회나 연주 음반들이 발매되어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국악 그 자체는 한국 음악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양악에 길들여진 우리의 귀에는 한국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악과 같이 익숙해진다면 국악은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음악계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척도가 되므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국악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양악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쉽게 국악에 접근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국악교육을 위해 국악과 양악의 유사한 영역들 간의 비교, 접목을 통한 학습지도안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악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본 음악교육, 특히 국악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학습지도안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과정을 살펴본다.

넷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도출해낸다.

다섯째, 학습지도안을 만든다. 학습지도안은 국악과 양악의 분류상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 이해·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모든 영역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학습지도안의 내용은 연주방법에 의한 악기 분류법에 따른 국악기와 양악기를 비교, 학습한 지도안, 오선보의 개념과 정간보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간보의 이해를 돕는 지도안, 제재곡 “너영나영”의 학습을 통한 창작에 대한 지도안이다.

### 3.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음악수업이 주2회에 불과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학습지도안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겠으나, 이 연구는 그 점을 이미 인식하고 출발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은 여기서 제시한 내용과 방법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 국악교육의 변천과정

#### 1) 1900년부터 교수요목기

한국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1906년 보통학교와 사범학교에 음악교과를 ‘창가(唱歌)’라는 다른 명칭으로 과목이 편성되어 1909년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되어졌지만, 교사와 교재의 부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주로 애국적, 권면적 성격의 노래를 부르는 정도였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행해진 처음부터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진행되었고 통감부와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의 음악교육은 초기 기독교적 서양노래나 일본식의 노래에 의한 교육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국악은 교육의 소재로서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음악교육은 일본식 공교육의 출발점인 조선총독부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처음 서양음악이 기독교를 통해 전달받은 그 영향만큼이나 한국근대음악사 전반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1909년 9월 15일 조양구락부를 결성하여 국악의 연주와 교육을 담당하여 국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악과 양악을 동시에 교육시킴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음악교육기관으로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조양구락부는 해산하여 1911년 6월 16일 조선정악전습소로 재정비되었다. 이처럼 국악의 수난기인 일

---

3) 오지선, 「한국 근대 음악교육」, (서울; 예술, 2003), p.137

제시대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전문국악교육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조선성악연구회, 국립국악원부설 국악사양성소 등을 통하여 현재 국립국악원에 이르기까지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룩된 결과물들이 현재 일반국악교육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 2) 제1차-제6차 교육과정 중 국악부분

정부는 1955년,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것이 교육내용과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성문화한 한국 최초의 교육과정(제1차)이었다. 그 후 오늘날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차례의 개편을 거쳐 왔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교육, 특히 국악교육의 내용<sup>5)</sup>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건전한 민요와 악기 및 음악가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li> <li>· 민속조로 된 곡과 한국 작품을 적어도 5곡 이상 사용한다.</li> <li>· 한국의 건전한 민요를 감상하도록 한다.</li> <li>· 국악기의 특징과 그 음악을 감상하도록 한다.</li> <li>· 민속음계를 이해하도록 한다.</li> </ul>

4) 이상규, “20세기 이후 국악교육의 전통과 계승”, 「한국음악연구」, (서울; 2003), 단일호 34권, p.85

5) 안영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28-29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과 스스로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더욱 향상 시킨다.</li> <li>·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를 부르도록 한다(전 가창 교재의 30%이상).</li> <li>· 한국의 음계로 이루어진 가곡을 부르도록 한다.</li> <li>· 한국 풍의 음악과 서양음악의 비교 감상 및 그 구성 요소의 차이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다.</li> <li>· 장구, 북, 징, 팽과리, 박, 편경, 훈, 축, 어, 가야금, 거문고, 담소, 피리, 소금, 중금, 대금, 나팔, 아쟁, 해금, 양금, 통소, 태평소, 생황, 당적 등의 국악기에 대한 이해 및 해당 음악을 감상하도록 한다.</li> <li>· 민요풍 및 기악곡 풍의 가락을 짓도록 한다.</li> </ul>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민요를 포함하여 한국 노래를 50%이상).</li> <li>· 민족적인 가락과 건설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li> <li>· 국악기와 다른 나라의 악기를 음악적으로 연주하도록 한다.</li> <li>· 국악기와 양악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감상하도록 한다.</li> <li>· 국악기의 독특한 형식과 주법 및 연주 형태를 체감, 이해하도록 한다.</li> <li>·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한국의 전통음악을 감상하도록 한다.</li> </ul>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li> <li>·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음악의 장단을 활용한다.</li> <li>·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다.</li> <li>· 모든 학습 활동 속에서 전통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한다.</li> </ul>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에 의한 가락, 민속풍의 가락 및 기악곡풍의 가락을 지어서 적도록 한다.</li> <li>· 한국 전통음악에 쓰이는 조 등으로 이루어진 악곡을 표현하도록 한다.</li> <li>· 민요, 구군악,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감상하도록 한다.</li> <li>· 전통음악에 쓰이는 가락 합주곡을 체험하도록 한다.</li> </ul>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음악의 장식음을 이해하도록 한다.</li> <li>· 12율명을 이해하도록 한다.</li> <li>·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장단 등을 포함하는 여러 장단을 치도록 한다.</li> <li>· 가사에 의한 가락 및 전통음악의 가락을 지어서 적도록 한다.</li> <li>· 전통가곡과 단가, 잡가, 판소리, 범패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도록 한다.</li> <li>· 산조, 연례악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도록 한다.</li> <li>· 전통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li> <li>· 기악학습에서는 쟁과리, 장구, 북, 징 등의 타악기와 단소, 리코더, 건반악기 등의 가락 악기를 중심으로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한다.</li> <li>· 전통음악의 학습은 이해, 표현, 감상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요는 시김새를 넣어 불러 보게 하며, 정간보를 보고 표현해 보도록 한다.</li> </ul>
-----	---

## 2. 제7차 음악교육과정의 국악부분

### 1) 이해영역<sup>6)</sup>

영역	내용체계	내용	
이해영역	리듬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 박자</li> <li>·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 변화</li> <li>·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4, (4+6)/4, 2분박, 3분박의 장단감을 살려서 부르기</li> <li>· 기승전결에 의한 변형장단 만들기</li> <li>· 갈라치기 장단을 만들기(여민락)</li> <li>· 장단의 종류와 기본 장단에 의한 변형 장단의 구성을 살펴보기</li> <li>· 엇모리, 세마치, 굿거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도드리, 자진타령, 타령</li> <li>· 장단의 생략과 변주(장단의 변화)</li> <li>· 중모리장단과 엇중모리 장단의 차이점</li> <li>·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에서 보여주는 박자와 장단, 이에 따른 리듬꼴을 실제로 표현해보며 이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여 학습</li> </ul>
	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계에 따라 가락의 구성</li> <li>· 여러 가지 조</li> <li>· 민요음계</li> <li>· 시김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음음계</li> <li>· 경 토리 제1형, 제2형</li> <li>· 서도민요(수심가 토리)</li> <li>· 동부민요(메나리 토리)</li> <li>· 남도민요(육자배기 토리)</li> <li>· 서도민요 창법, 호흡, 발성</li> <li>· 동부민요 창법과 남도민요창법의 비교</li> <li>· 시김새의 표현, 시김새가 들어있는 부분 찾기, 시김새의 차이점 알아보기</li> <li>· 각 학년에 맞는 민요를 지도하고 전통음악의 특징인 시김새를 이해시키고 자기 지방의 민요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보기</li> </ul>

6) 안수진, “중학교 국악교육의 개선방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별로 구성음과 가락이 진행되는 방향이 다르며,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밀어 올리거나 끌어올리는 소리가 있음을 실제로 표현해 보기</li> </ul>	
이 해 영 역	화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성부의 어울림</li> <li>· 여러 조의 주요 3화음, V7화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곡에서 가락과 화음이 얼마나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지 듣고 연주하기</li> </ul>
	형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의 변화</li>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형식</li> <li>· 성악곡(전통가곡 등)</li> <li>· 기악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배에 의한 형식비교</li> <li>· 2부 또는 3부 합창, 부분 4부 합창</li> <li>· 제창 : 가원도 아리랑, 금강산 타령, 쑥대머리, 개구리타령, 경기선소리, 배따라기, 상주모심기, 새타령, 진도아리랑, 소금장수</li> <li>· 형식 : 연음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세틀형식, 엮음형식, 긴자진 형식, 도드리형식, 모음곡 형식</li> <li>· 단가 : 고고천변, 백발가, 진국명산, 죽장망해, 사철가, 초한가</li> <li>· 산조 : 다악장 형식</li> <li>· 연음형식 : 수제천</li> <li>· 음악사와 연관 지어 각 시대별, 문화별, 지역별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이해</li> </ul>
	셈 여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의 변형과 강약</li> <li>· 장구의 목판과 변죽치기</li> </ul>
	빠 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li> <li>· 산조, 영산회상, 새타령(6/8박→6/4박)</li> </ul>
	음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음원의 크기, 모양, 재료에 의한 소리변화</li> <li>·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소리나 민요에서의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밀어 올리거나 밀어내리는 소리</li> <li>· 단소나 가야금 등 악기의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소리</li> <li>· 관현악 반주와 성악과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li> <li>· 민속악기</li> <li>·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li> </ul>	
--	---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 체계에서 이해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썸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리듬은 여러 종류의 기본 장단을 바탕으로 하여 변형장단과 장단의 리듬 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 장단의 학습을 기초로 하여 장단의 다양한 변형을 통하여 장단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혼합박자와 2분박, 3분박의 장·단감을 살려 부르도록 되어 있다.

국악에서의 가락은, 하나의 가락이 중심이 되는 악곡과 여러 개의 가락이 제각기 독립성을 이루는 악곡이 있다. 높은 음역의 가락, 낮은 음역의 가락 모두 제각기 특징을 가진다.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민요 음계와 시김새를 지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sup>7)</sup>

음계에서는 학년에 맞는 민요음계를 지도하고 국악의 특징인 시김새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민요음계는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형태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자기 지방의 민요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도 무방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각 지방별로 음계 구성음과 가락의 진행되는 방향이 다르며, 떠는 소리(요성), 밀어 올리거나(추성), 흘러내리기(퇴성), 꺾기(상퇴성) 소리 등의 시김새를 넣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고,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의 가락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각 지방별 민요의 음계, 창법이 실려

---

7) 안영순(2002), 앞글, p.20

있고, 시김새를 표현, 비교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민요음계뿐만 아니라 시조, 가사, 판소리, 가곡의 음계, 평조, 계면조, 선법 등도 함께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연계성 있고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에서 형식은 긴 자진 형식이나 위음 형식 또는 연음 형식의 다양한 형식의 곡을 편성하고 연례악, 제례악, 단가, 잡가를 비롯하여 산조 등을 감상곡으로 그 밖에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이 교육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음색에서는 우리나라 국악기가 갖는 음색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수되어 온 독특한 음색과 음악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악의 음색 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판소리, 민요에서의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악기 소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단소, 아쟁 등 국악기 소리를 추가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창법과 주법에 따라 음색이 다른 것과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지방의 창부 타령조, 동부 지방의 메나리 조, 전라도 지방의 육자배기 조, 서도 지방의 수심가 조 등의 민요, 판소리, 범패, 시조나 전통 가곡 등 그 악곡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나 또는 그 분위기와 목소리의 음색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변화와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 및 국악기 소리와 음질의 변화를 구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악의 중요한 요소인 ‘여러 가지 장단의 형태’와 ‘시김새’ 등의 음악 요소들을 어떻게 음악 활동과 연관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활동영역

영역	내용체계	내용	
활동영역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호흡발성으로 노래</li> <li>· 악곡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노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래동요나 민요를 부를 때는 되도록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서 해보거나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본다.</li> </ul>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li> <li>·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다양한 소리와 표현력을 가진 연주 경험을 통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음악적으로 성장하게 한다.</li> </ul>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에 어울리는 곡 창작</li> <li>· 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창작</li> <li>·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에 어울리는 전통가락을 만든다.</li> <li>· 장단에 어울리는 가락과 가사를 만든다.</li> <li>· 만든 곡을 노래와 악기로 발표하여 표현력의 향상과 창작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연주를 듣고 느낀 점을 평가하도록 한다.</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li> <li>· 다양한 악기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li> <li>·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야금 협주(국악곡), 사물과 관현악 협주(국악·양악의 협주형태) 등의 연주형태를 통하여 감상곡의 다양한 연주형태를 보여준다.</li> </ul>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활동 영역은 음악의 중요한 4가지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적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가창은 바른 자세와 호흡, 자연스러운 발성을 지도하고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중학교에서는 합창과 중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창 지도에서는 가락(율명, 구음)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악의 음정감, 리듬감, 속도감 등의 감각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창작에서는 기초적인 창작 능력을 중심으로 개인별·그룹별로 음악을 만들어 노래하고 연주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고, 학생이 독창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적고 연주하도록 하였다. 국악의 창작 시도는 장단을 이용한 창작지도,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용한 창작지도, 가사에 의한 가락 짓기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국악의 감상지도는 귀로 듣기만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서 악보를 보며 듣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만 국악과 친해질 수 있다. 그 밖에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활동중심, 개인별, 그룹별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하고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악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악에서는 바른 자세와 바른 주법을 익히게 하고,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학생들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악기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하여 심화 학습이 되도록 하며, 합주에 중점을 두었다. 국악의 기악 지도는 오선보에 의한 지도와 정간보에 의한 지도로 구분되며, 주로 전래동요나 민요 등의 교과서 곡을 연주하게 한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대부분 오선보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간보로 역보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3. 중학교 1학년 국악교육

중학교 1학년 국악교육의 내용은 이해와 활동으로 각각 나뉘어 지고 해당하는 내용<sup>8)</sup>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해	리듬	·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
	가락	· 여러 가지 조에 따른 가락의 구성, 민요음계, 시김새
	형식	· 가락의 변화, 긴 자진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형식,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셈여림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르기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색	· 다양한 음원의 크기/모양/재료에 의한 소리 변화, 음역에 따른 목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의 조화,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협주)
활 동	가창	· 장단 구음으로 부르기 · 두개의 모듬으로 나누어 한 모듬은 장단을 구음으로 불러보고 다른 모듬은 노래 · 입장단과 무릎장단 연습을 통해 악곡의 장단과 구조를 이해
	기악	· 단소 등의 악기를 독주형태로 연습하고 발표 · 여러 가지 기본 장단을 입장단으로 익히고 악기를 연주(노래를 반주) · 각 장단의 기본 장단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구음으로 연주하고 서로 평가

8)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2001, p37, 85, 112, 150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를 가진 한 도막 형식의 곡의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고 창작한다.</li> <li>· 만든 곡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주 자세나 표정을 잘 살려 적극적으로 개성 있는 연주를 한다.</li> <li>· 다른 학생의 연주를 듣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평가한다.</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를 들으면서 손동작으로 떠는 소리, 쪽 뺨은 후 떠는 소리, 뺨는 소리를 표현한다.</li> <li>· 연례악을 사진, 그림, VTR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감상한다.</li> <li>· 음악을 듣고 악곡에서 드러나는 분위기, 상황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li> </ul>

### Ⅲ. 학습지도안

#### 1. 학습지도안의 계획

학습지도안은 총 세 가지로 각 3차시로 구성하며 총 9차시로 한다. 차시는 학습계획의 진행과 그 연관성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차시가 높아질수록 계열성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학습지도안은 효과적인 국악교육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비교적 국악보다 양악에 익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양악에 대한 지식은 수업을 통하여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고, 이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생활 속에서도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주제	국악기 vs 양악기	오선보 vs 정간보	제재곡 “너영나영”을 통한 창작
목표	동일한 악기분류법에 따라 같은 군에 속하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비교, 학습하여 국악기 개념에 대한 이해 돕기	오선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정간보의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하기	제재곡의 학습, 특히 리듬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변형한 제재곡과는 다른 느낌의 곡 만들기
영역	이해, 활동(감상, 기악, 가창)	이해	이해, 활동(창작, 감상)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기와 양악기에 대해 이해하기</li> <li>· 설명한 악기의 소리를 듣고, 사진을 듣고 각각 보여주기</li> <li>· 동일한 곡을 국악기와 양악기로 각각 연주한 음악 들려주고 느낌 발표하기</li> <li>· 학생들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실제 제재곡 “잠자리”의 양악기로서의 기악합주와 이와 비슷한 국악기를 찾아 합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기보하기</li> <li>· 기보체계에 대해 이해하기</li> <li>· 정간보와 오선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li> <li>· 여러 가지의 짧은 음악을 오선보와 정간보, 2가지 형태로 만들어 짝지어보기</li> <li>· 오선에 있는 짧은 멜로디를 직접 정간보에 직접 옮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곡 “너영나영” 노래하기</li> <li>· 세마치장단과 변형장단 학습하기</li> <li>· 제재곡에 있는 9/8박자 리듬을 찾고, 이를 변형시키기</li> <li>· 변형된 리듬을 통하여 창작하기</li> <li>· 창작한 곡을 연주하고 의도 발표하기</li> <li>·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발표하기</li> </ul>
<p>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의 종류 매우 많아 수업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나 각각의 악기군에 있는 음악들은 고르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로악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을 창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마디수를 제한한다. 또한 첫마디는 교사가 제시하고 끝 음은 으뜸음으로 끝나도록 한다.</li> </ul>

한국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학습으로서 접하는 악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네에 한 개 이상의 학원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이다. 음악교육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모든 학생들 중 80%가 넘는 인원이 피아노로 음악학습을 시작했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약 5%가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한다.<sup>9)</sup> 그런데 왜 한국에서 태어나 자

9) 민은기·김대호,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 연구소, 2000), p.60

라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악기가 양악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악기는 연주방법도 모르고, 악기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양악기의 연주에 능숙하다는 것은 분명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대부분 국악기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단소나 장구가 가장 많다. 이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바뀐 요즘의 이야기이며, 예전에는 국악기라 하면 교과서의 사진으로 처음 접해보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의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단소 한번 분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국악기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양악기와의 비교학습을 택하였다. 국악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그 후 연주방법으로의 분류방법을 택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언급하여 비교학습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악기를 통하여 국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음악교과서를 살펴보면 국악과 양악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대등해지고 있지만, 국악이든 양악이든 기보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도 오선보를 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국악이 마치 원래부터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악은 한국의 기보 체계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으로 학생들에게 국악의 기보 체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므로 국악의 여러 기보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정간보를 오선보와의 비교학습을 통해 이해를 도와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선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오선보의 개념을 통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정간보와의 개념과 비교하여 좀더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 학교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창이나

기악 등을 통하여 국악을 많이 배우게 된다. 특히 기악부분에서는 단소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개량된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고,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요악보나 단소악보 등을 실으면서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수업진행시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였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수업에서 역시 이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약 65%가 음악 수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되는 영역이 '창작'이라고 한다.<sup>10)</sup> 물론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의 전공과 다른 영역을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 역시도 창작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는 제재곡 “너영나영”의 학습을 통하여 9/8박자의 리듬과, 그 리듬에 대한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기초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창작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막 형식의 곡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창작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막연한 창작이 아니라 창작을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곡을 완성시킴으로써 성취감과 앞으로의 학습의 충분한 동기유발이 된다.

하지만 학생은 누구나 음악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음악적 창의력은 학생들이 습득한 음악적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계발되고 신장될 수 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구성을 해보고, 독창적인 작품을 쓰고 다양한 양식으로 즉흥 연주함으로써 음악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학교수업에서의 즉흥적인 창작활동이나 작곡활동은, 창작활동 그

---

10) 이내경,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수업 내용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28-29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음악적 개념을 습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국어과목에서 말하기, 듣기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나타낼 수 있고, 짓기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듯이, 음악과목에서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음악을 즉흥 연주하거나 창작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본질과 구조를 경험하게 되며, 음악형식, 리듬, 화음,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양식 등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이러한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하게 된다.

창의력 계발을 위한 음악수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사가 학생들의 창작과정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교사가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좀 더 나은 계획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편견 없이 정확하게 평가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작활동을 위한 다각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문제 해결력이 발달하게 된다.<sup>11)</sup> 또한 교사는 청각적 식별력이 감정적으로 들리게 하는 필요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작곡상의 만족스럽고 덜 만족스러운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식별하는 능력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sup>12)</sup>

학습지도안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의 수업방식과 다른 수업을 접하게 될 것이고, 초등학교 때에 배웠던 내용과 새롭게 학습하게 될 부분들과의 연결이 되는 시기로 이러한 학습지도안의 내용을 적용하기 적당하고, 해당 학습내용을 이해하

---

11)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6), p.260

12) Chares R. Hoffer, 「음악교육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29

고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기이다.

지도안을 만들 때 학습이 모두 끝난 후의 효과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해 좀더 친근하게 느끼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국악교육의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해와 활동은 분리하지 않고 수업 과정에 복합적으로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흥미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해위주의 수업보다는 활동의 비중을 높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국악기와 양악기의 비교학습을 통한 학습지도안

### 1) 학습주제 선정동기

이 학습지도안은 국악기와 양악기의 비교학습을 통해 악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국악기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국악기보다는 양악기에 더 길들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양악기의 종류, 그 이상으로 훨씬 다양한 국악기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지 사진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소리도 들어보고 연주하는 것도 보면서 양악기만큼 다양한 국악기에 대해 직접 접해보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 학습이 요구되어진다.


## 2) 학습계획

학습주제	국악기 vs 양악기	차시	3차시
학습목표	양악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류 및 정리,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여 국악기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분류 및 정리		
학습자료	악기사진,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확대악보, OHP, VTR, 간단한 악기 등		
수업영역	이해, 활동(감상, 연주, 가창)		
수업단계	학습내용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분류법에 대해 이해하기</li> <li>·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에 대해 이해하기</li> <li>· 악기사진 보고 분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 사진, OHP</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소리 듣고 분류하기</li> <li>· 같은 음악을 국악기와 양악기로 각각 연주한 곡 감상하기</li> <li>· 양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국악기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자료</li> <li>·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처음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악기부터 보기 힘든 악기의 순서로 한다.</li> </ul>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악기를 사용하여 이미 학습했던 합주곡 연주하기</li> <li>· 합주곡에서 사용되었던 양악기들을 분류하고 그 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 찾기</li> <li>· 모둠별로 악기를 지정하여 대체된 국악기로 연주하기</li> <li>· 수업내용에 대해 정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악보</li> <li>· 합주곡은 학생들이 이미 배운 곡을 선정한다.</li> <li>· 간단한 악기를 준비한다.</li> </ul>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였는가?</li> </ul>		

### 3) 본시

#### ① 1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악기분류법에 대해 이해하기</p>	<p>· 학습목표와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악기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주방법에 따른 분류법을 기준으로 국악기와 양악기에 대해 설명한다.</p> <p>· 악기분류법에 대해 이해하기 →악기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p> <p>· 국악기의 악기분류법에 대해 이해하기 →연주방법에 따른 분류법과, 재료에 따른 분류법과 계통에 따른 분류법으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한다.</p>	<p>· 연주법에 의한 분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한다.</p> <p>· “자료1”참고</p> <p>· “자료2”참고</p>
<p>·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에 대해 이해하기</p>	<p>· 각 악기군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연주법에 의한 악기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악기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해당 악기군에 속하는 악기들을 발표하도록 한다.</p> <p>〈예시〉 교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기는 어디에 속하는지 발표해볼까요? 학생) 바이올린은 현악기에 속합니다. 교사) 그렇죠? 그럼 현악기에 속하는 다른 악기들도 찾아봅시다.</p>	<p>· “자료3” 참고</p> <p>· 학생들이 발표한 악기들에 대해 틀린 부분은 교사가 반드시 정정하여주고, 필요한 부연설명을 한다. 학생들이 악기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p>

<p>• 악기사진보고 분류하기</p>	<p>• 악기사진을 보고 어떤 악기군에 속하는 악기인지 맞추기  →교사가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의 악기 사진들을 무작위로 한 장씩 보여주고 악기들을 분류해보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악기의 이름과 연주하는 방법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흔하게 접해왔던 음악 중에서 예를 들어 직접 들려줌으로써 이해를 돕는다.</p> <p>&lt;예시&gt;</p>  <p>이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해금이 연주된 음악 중에서 쉽게 알만한 곡으로는 체시라가 광고하는 화장품 선전에서 피아노가 반주하는 해금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Small flowers near by the railroad"이고, 연주자는 유명한 해금 연주가인 "이꽃별"입니다.</p>	<p>• 악기사진, OHP, 녹음자료</p> <p>• “자료4”참고</p>
----------------------	--	---

② 2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악기 소 리 듣고 분류하 기</p>	<p>· 악기소리 듣고 악기군 분류하기 →사진으로 봤던 악기들의 실제 소리는 어 떠한지 녹음자료를 통해 들려준다. 이 과 정에서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악기의 소리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분류하기 쉬 운 악기부터 시작한다.</p> <p>· 여러 종류의 악기가 나오는 연주회 실황 감상하기 →각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악기를 실제로 연주회 실황을 보여준다. 악기가 확대되어 나오는 장면에서는 잠시 정지하 고 학생들에게 악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다. 이때 교사는 모든 악기를 다루지 말 고 학생들이 관심 갖는 악기들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또한 악기의 소리에 대해서 학 생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 준다.</p>	<p>· 시 청 각 자 료 , VTR</p> <p>· 악기소리를 들 려줄 때는 국악기 와 양악기의 각각 같은 악기군의 소 리를 교대로 들려 주어 악기군에 대 해 명확히 이해하 게 한다.</p>
<p>· 같은 음악 을 국악기와 양악기로 각 각 연주한 곡 감상하기</p>	<p>· 국악기와 양악기가 각각 같은 악기군으 로 연주된 같은 음악 감상하기 →동일한 곡을 같은 악기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기와 양악기가 연주한 곡을 각각 들려준다. 이때 감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들어야 할지에 대해 학생들에 게 언급한다.</p> <p>〈예시〉 파헬벨(Pachelbel, Johann)의 캐논(Canon)을 현악4중 주로 편곡된 연주와 가야금 3중주로 편곡된 연주로 각각 들어본다.</p>	<p>· 음악자료(음악 은 평소에 많이 접했던 곡 중에서 선택하여 비교하 는데 용이하게 한 다.)</p>

	<p>· 감상곡에 대해 발표하기 →학생들이 감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곡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질문(예시참고)한다.</p> <p>&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li> <li>· 첫 번째(양악기로 연주된 곡) 곡은 어떤 악기들로 연주했을까요?</li> <li>· 두 번째(국악기로 연주된 곡) 곡은 어떤 악기들로 연주했을까요?</li> <li>· 이 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li> <li>· 국악기와 양악기로 각각 연주된 음악을 감상했는데, 느낌이 어떠한가요?</li> </ul> <p>· 곡에 대해 이해하기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p> <p>· 감상 후 느낌에 대해 발표하기</p>	<p>· 감상 후 느낌에 대해 발표할 때 감상하기 전 교사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먼저 발표하게 한다.</p>
<p>· 양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국악기 찾기</p>	<p>· 해당 양악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 찾기 →학생들에게 비슷한 느낌을 가진 악기를 짝짓게 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이 악기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p>	

③ 3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양 악기를 사용하여 이미 학습했던 합주곡 연주하기</p>	<p>· 제재곡 “잠자리”에 대해 알기 →제재곡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크게 4모듬으로 나눈다.</p> <p>· 각 모듬별로 악기 지정하기</p> <p>&lt;예시&gt; 1모듬 : 멜로디언 2모듬 : 트라이앵글 3모듬 : 작은북 4모듬 : 큰북</p> <p>· 각 모듬별로 제재곡의 합주를 위한 부분 연습하기 →큰북이나 작은북 등의 악기는 학생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우니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등으로 대체하여 연습하도록 한다.</p> <p>· 제재곡 합주하기 →각 모듬에 해당하는 악기 연주자를 2-3명씩 정하여 앞에서 연주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확대악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직접 오르간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합주하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합주를 들으며 노래하도록 한다.</p>	<p>· 제재곡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음악책에 있는 제재곡을 택하였다. 이는 학생 대부분이 이 곡에 대해 이미 학습하였으며, 합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p> <p>· 확대악보(“자료 5”참고), 합주에 해당하는 악기(오르간, 멜로디언, 트라이앵글, 작은북, 큰북 등)</p> <p>· 모듬학습</p>

<p>· 합주곡에서 사용되었던 양악기들을 분류하고 그 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 찾기</p>	<p>· 합주곡에 사용된 악기들을 말하고, 대체될만한 비슷한 악기 찾기 →이때 양악기 중에서 제한하여 찾아보고, 분류하도록 한다.</p> <p>· 분류된 양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 찾기</p> <p>〈예시〉 교사) 이번에는 합주했던 양악기를 국악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악기에서는 건반악기가 없는 것 다들 알고 있죠? 그럼 멜로디언이나 오르간 같은 악기는 어떤 악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학생) 가락이 있는 악기면 되지 않나요? 교사) 그렇겠죠? 그럼 가락이 있는 악기 중에서 찾아봅시다.</p> <p>→교사는 〈예시〉와 같이 질문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대답을 유도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앞에서 학습한 악기들을 연상해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연주가 가능한 악기로 마무리하여 합주가 가능하도록 한다.</p>	<p>· “자료6”참고</p> <p>· “자료7”참고</p>
<p>· 모둠별로 악기를 지정하여 대체된 국악기로 연주하기</p>	<p>· 대체된 국악기로 합주하기 →해당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노래한다.</p> <p>· 합주 후 느낌 발표하기 →같은 곡을 양악기와 국악기로 연주한 2차시의 감상곡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한 느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p>	<p>· 합주에 필요한 악기</p>
<p>· 수업내용에 대해 정리하기</p>	<p>· 수업을 통해 느낀점 발표하기 →교사는 수업을 정리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 4) 참고자료

##### ① 자료1

- 악기분류법의 설명

양악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악기에는 건반악기 현악기(絃樂器)·관악기(管樂器)·타악기(打樂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악기들은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런데 국악기는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나무나 돌, 철 등의 악기의 재료나 음악계통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악기와 같이 연주법에 의해 관악기·현악기·타악기로 나누기도 하고, 악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 ② 자료2

-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국악기 분류법

###### ㄱ) 재료에 따른 분류

재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악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중요한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의 8가지 재료를 말하며 이것을 8음(八音)이라 합니다. 연주법에 따른 분류법을 보면,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로 분류하는 성능분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 ㄴ) 계통에 따른 분류

음악 계통에 따른 분류를 보면, 향부(鄉部) 악기는 우리나라에서 창작되어진 재래악기를 말하며, 당부(唐部) 악기는 중국의 속악기<sup>13)</sup>를 비롯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외래 악기를 통칭하는 것이며, 아부(雅部) 악기란 고려 세종 때 송(宋) 나라에서 수입한 대성(大晟) 아악기를 비롯하여 중국

---

13) 향악기의 다른 이름.

고대 아악에 사용되던 악기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③ 자료3

#### · 악기군에 대한 특징 설명

악기 군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건반악기는 건반이 있는 모든 악기들을 건반악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피아노는 물론이고 멜로디언이나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르간 등이 모두 속하는데, 안타깝게도 국악기 중에서는 건반악기가 없습니다. 현악기는 줄이 있는 악기로 줄을 활로 마찰시키거나 손으로 통겨서 연주하는 악기는 모두 여기에 속하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악기를 만든 재료에 따라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로 나뉩니다. 타악기는 때리거나 흔드는 등의 마찰로 인해 연주하는 악기로 높낮이가 있는 타악기와 없는 타악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 ④ 자료4

#### · 해금설명

이 악기는 어떤 악기 군에 속할까요? 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악기겠죠? 이름은 해금입니다. 해금은 국악기 중 사부(絲部)에 속하는 칠현악기로, 원래 중국에서 당·송나라 이후 속악(俗樂)에 쓰이던 것이 한국에 고려시대에 들어와 향악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큰 대의 밑뿌리와 해묵고 마디가 촘촘한 오반죽(烏斑竹)을 재료로 몸통을 만들고 여기에 줄을 두 가닥 연결하였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활을 안줄과 바깥줄 사이에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데, 울림통과 두 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원산(遠山:북쇠)으로 이것의 위치에 따라 음량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해금엔 일정한 음자리가 없이 다만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집니다. 해금은 현악기이면서도 관악합주

에 반드시 편성되어 관악기와 현악기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또 삼현육각을 비롯해 궁중음악의 편성에는 물론 민속악 전반과 무용반주악에서도 피리·대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락악기입니다. 근대에는 해금산조와 신곡(新曲)의 독주악기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기 제작의 8가지 재료인 8음을 모두 갖춘 악기는 해금뿐입니다.

⑤ 자료5

· 제재곡 “잠자리” 악보

**잠자리**

보통빠르게 *mf* 손대업 작곡

The musical score is arranged in three systems. Each system contains four staves: Gak1 (top), Gak2, a percussion section (Janggu, Jangjuk, Bong), and a bass line. The first system begins with a 'mf' dynamic marking. The second system begins with an 'mp' dynamic marking. The third system begins with an 'mf' dynamic marking.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articulation marks.

⑥ 자료6

· 곡에 사용된 악기 설명

이 곡은 모두 잘 아는 곡이죠? 바로 “잠자리”라는 곡으로, 이 곡에서는 악기가 모두 5가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악기는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멜로디언, 풍금입니다. 그럼 악기별로 특징을 알아보을까요? 이 악기들은 모두 양악기죠? 우선 큰북과 작은북,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타악기이고, 풍금과 멜로디언은 건반악기입니다. 그런데 국악기에서는 건반악기를 찾아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대체될만한 악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 곡에 사용된 악기들은 리듬악기와 가락악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⑦ 자료7

· 대체할 수 있는 악기 설명

각 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악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선 리듬악기부터 봅시다.(이때 교사는 자신이 대안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해준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악기들로 대체해야 연주할 수 있겠죠?(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악기들에 대해 말하고 그 중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먼저 큰북과 작은북은 타악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구나 북, 소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국악기에서는 건반악기가 없으니 가락악기 중에서 선율을 연주할만한 악기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연주할 수 있는 단소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 5) 평가

차시	평가내용	평가방법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였는가?</li> <li>· 악기를 군에 따라 각각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가?</li> </ul>	관찰법 질문법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군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로 악기들을 접했을 때 응용할 수 있는가?</li> <li>· 양악기와 국악기에 대한 감상 후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가?</li> <li>·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였는가?</li> </ul>	관찰법 자기평가 질문법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악기의 국악기로의 비교가 원활한가?</li> <li>· 자신의 파트를 이해하고 제대로 연주하고 있는가?</li> <li>· 합주하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잘 되고 있는가?</li> </ul>	관찰법 자기평가 토론

## 6) 정리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연주에 대해 평가하게 하고, 각자가 수업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수업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한다.

### 3. 정간보와 오선보의 비교학습을 통한 학습지도안

#### 1) 학습주제 선정동기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양악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대등해지고 있지만, 국악과 양악 모두 기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선보를 기초로 하여 교육하여 왔다. 하지만 점점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량된 국악요소를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국악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로 정간보이다.


여기서는 여러 국악 기보 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대표적인 기보 체계인 정간보에 대한 이해와 정간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 2) 학습계획

학습주제	오선보 vs 정간보	차시	3차시
학습목표	국악의 기보체계인 정간보에 대해 양악의 오선보와의 비교, 학습을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정간보를 자유롭게 읽고 연주하기		
학습자료	간단한 동요악보(정간보를 사용한 가창악보와 기악악보), 여러 기보체계에 의한 악보, OHP 등		
수업영역	이해		
수업단계	학습내용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기보하여 자신이 기보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기</li> <li>양악과 국악의 기보체계에 대해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자료(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기보할 수 있는 큰 특징점을 가진 음악으로 선정한다.)</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선보와 정간보에 대해 이해하기</li> <li>두 악보의 특징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보사진, OHP</li> </ul>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간단한 음악을 오선보와 정간보 2가지 형태의 악보 중에서 서로 같은 음악 찾기</li> <li>음악을 듣고 해당하는 악보 찾기</li> <li>간단한 멜로디가 있는 오선보를 정간보로, 정간보를 오선보로 옮기기</li> <li>수업 후 자유롭게 토론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같은 음악의 2가지 형태의 악보</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보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였는가?</li> </ul>		

### 3) 본시

#### ① 1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기보하여 자신이 기보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기</p>	<p>· 학습목표,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오선보와 정간보의 비교, 학습을 통하여 정간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 음악 감상하기 →교사가 미리 준비한 음악을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이때 음악은 2번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냥 들어보게 하고, 두 번째는 직접 음악을 기보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음악을 기보할 때 교사는 절대로 예시를 들지 말고 학생들이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p> <p>· 기보한 후 자신의 악보 발표하기 →기보 후에는 자신이 직접 기보한 악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 역시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감상한 후 기보하여 먼저 발표한다.</p> <p>&lt;예시&gt; 감상곡 :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p> 	<p>· 음악자료(특징이 강한 음악으로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기보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p> <p>· 학생들이 기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보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보의 중점사항에 대해 언급한다(“자료1”참고).</p> <p>· 교사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꼭 칭찬을 해준다.</p>

	교사) 나는 막대로 간단히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막대의 길이로 박자를, 위치로 음높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해볼까요?	
· 양악과 국악의 기보체계에 대해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보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기보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설명한다.</li> <li>· 양악의 기보체계에 대해 이해하기 →양악의 대표적인 기보체계인 오선보에 대해 설명한다.</li> <li>· 국악의 기보체계에 대해 이해하기 →국악의 기보체계의 다양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이 부분이 길어지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언급하고, 최근에 사용되는 악보 위주로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2”참고</li> <li>· “자료3”참고</li> <li>· “자료4”참고</li> </ul>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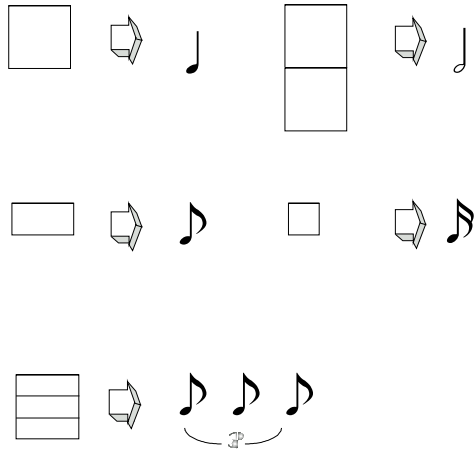


교사)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고유의 악보입니다.

• 두 악보의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기  
 →교사는 두 악보를 비교하여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음높이와 박자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시> 판서의 방법

• 두 악보의 특징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 대부분 가로 정간보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도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자료7”참고

• 학생 각자가 정사각형의 종이를 실제로 접도록 하면서 설명을 하면 더욱 쉽게 박에 대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다.

③ 3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여러 가지 간단한 음악을 오선보와 정간보 2가지 형태의 악보 중에서 서로 같은 음악 찾기</p>	<p>· 2가지 형태의 같은 음악 찾기</p> <p>&lt;예시&gt; 교사)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정간보와 오선보가 있습니다. 동일한 음악을 두 가지 형태의 악보로 각각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같은 음악끼리 짝지어 볼까요?</p>	<p>· 같은 음악의 2가지 형태의 악보</p> <p>· “자료8”참고</p>
<p>· 음악을 듣고 해당하는 악보 찾기</p>	<p>· 음악 듣고 해당하는 악보 찾기 →여러 가지 음악의 정간보를 주어 교사가 간단한 음악을 들려준 후 그에 해당하는 악보를 찾도록 한다.</p> <p>&lt;예시&gt; 교사) 짧은 음악을 들려주겠습니다. 음은 “태“와 ”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리듬에 주의해서 듣고 해당하는 악보를 찾아보세요.</p>	<p>· 음악을 들려줄 때는 리듬의 개념을 확실히 하도록 음은 1-2음 정도로 제한한다.</p>
<p>· 간단한 멜로디가 있는 오선보를 정간보로, 정간보를 오선보로 옮기기</p>	<p>· 제시된 음악을 오선보는 정간보로, 정간보는 오선보로 옮겨보기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념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렵지 않게 한다.</p> <p>&lt;예시&gt; 교사) 두 마디씩(8박자)의 각기 다른 내용의 악보가 있습니다. 오선보는 정간보로, 정간보는 오선보로 옮겨봅시다.</p>	<p>· 짧은 음악이지만 민요 등의 익숙한 음악으로 준비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p> <p>· “자료9”참고</p>
<p>· 수업 후 자유롭게 토론하기</p>	<p>·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 수업내용 정리하기</p>	

#### 4) 참고자료

##### ① 자료1

###### · 기보하기 전 주의사항

기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이 음악을 듣고 음악의 흐름이나 특징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규칙 같은 것은 없고, 당연히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을 기보한 것을 보고 자신이 설명할 수는 있어야하겠죠?

##### ② 자료2

###### · 기보에 대한 일반적 의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사전달의 수단인 말처럼 음악에도 기보라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는데, 이는 작곡자와 연주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보는 특정한 음높이와 리듬을 나타내어 음악을 기록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오선보표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금 양악에서 가장 대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오선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③ 자료3

###### · 양악의 기보체계

다섯줄의 보표선과 음표로 이루어진 악보가 생겨난 것은 9세기경으로, 자주 연주되지 않아 잊어버리기 쉬운 성가에 주로 표시해 두고 기억을 도왔던 '네우마(그리스어로 '제스처' 혹은 '기호' 라는 의미)'가 기보법의 시초인데, 이것은 성가 가사 위에 약간의 표시를 해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선율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보표선을 사용하

기 시작한 것은 10세기경으로 4줄짜리 보표선과 함께 음자리표를 사용한 것은 12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음표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그 음표도 지금 쓰이는 '음표'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을 하나나 두 개 이상을 이어 그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 ④ 자료4

##### · 국악의 기보체계

국악에서는 오늘날 양악과 함께 도입된 오선보 기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오선보를 사용하기 이전에 율자보, 궁상자보, 공척보, 약자보, 육보, 합자보, 정간보, 오음약보, 연음표, 대강보, 선율보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여러 기보법들 중에 육보, 율자보, 정간보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보법입니다. 특히 정간보는 예전의 단순한 음들의 표기법에서 벗어나, 복잡한 음들을 많이 표기해야 되는 점들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기호들을 고안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보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선보에 다양한 기호들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자료5

##### · 오선보에 대한 설명

오선보는 음악에서 다섯 개의 평행선과 음표를 사용한 기보법으로, 유럽에서 10세기 이래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의해서 음정의 표기가 명확해지고 다시 13세기 이후에 정량기보법의 발달로 리듬의 표기도 가능해졌으며, 17세기에는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요소는 다섯줄의 선(보표)위에 음의 높이를 정하는 음자리표, 각 조의 으뜸음 “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조표·박자·셈여림·장식·호흡·발상 등을 지시하는 여러 가지 기호, 음의 길이의 비율과 높이를 나타내는 음표 등입니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기보법으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나, 원래 근대 음악양식에 밀착해서 성립된 기보법 이므로 유럽 이외 지역의 음악, 중세나 현대음악을 표기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⑥ 자료6

· 정간보에 대한 설명

정간보는 조선시대 세종이 창안한 악보로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율자보나 공척보 등이 음의 식가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 정간보가 창안된 것입니다. 세종 때의 정간보는 1행 32정간을 질러 우물정자 모양으로 하고, 한 칸에 율명을 기입하여 음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칸은 박자를 나타내고 기입된 율명은 음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종이 창안한 이 유량악보는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⑦ 자료7

· 정간보 개념을 위한 수업 진행 방법

ㄱ) 첩판에 정사각형을 한 개 그리고 옆에 등호표시를 한 뒤 사분음표를 그린다. 그런 뒤 정간을 두개 그리고 어떤 음표와 박자가 같은 것인지, 세 개, 네 개 등으로 그려 정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ㄴ) 양악에서 보면 한 박자 둘 이상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ㄷ) 정사각형의 종이를 한 정간이라고 말하고 절반을 가로로 접는다. 그러면 두 칸으로 나뉘니까 위의 칸과 아랫 칸 각각에 팔분음표 한 개씩을 그린다. 그런 뒤 다른 정사각형의 종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접어 셋잇단음표를, 네 칸으로 접어 16분 음표 개념 등을 설명해준다.

ㄹ) 정간보의 박자에 대해 알겠지요? 그럼 이런 박자는 정간보에서 어떻게 기보 할 수 있을까요?

ㄱ) 부점 리듬의 음표를 준 뒤 기보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고 교사가 확인시켜준다.

⑧ 자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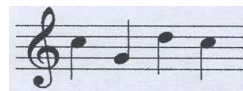
· 문제의 예시

(※ 같은 음악끼리 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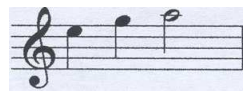
無	仲	潢	無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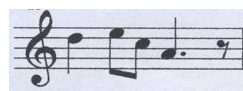
汰	沖	淋	-
---	---	---	---



潢	汰無	林	-△
---	----	---	----



仲	--林	仲-林	潢
---	-----	-----	---





## 5) 평가

차시	평가내용	평가방법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는가?</li> <li>• 음악의 특징에 맞게 기보 하였는가?</li> <li>• 음악을 듣고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li> </ul>	<p>관찰법 질문법</p>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악과 국악에 대한 기보체계를 이해하였는가?</li> <li>• 오선보와 정간보에 대해 이해하였는가?</li> <li>•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가?</li> </ul>	<p>관찰법 자기평가 질문법</p>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선보와 정간보로의 옮김이 서로 자유로운가?</li> </ul>	자기평가

## 6) 정리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가 수업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재미있었던 점등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수업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수용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한다.

#### 4. 제재곡 "너영나영"을 통한 창작 학습지도안

##### 1) 학습주제 선정동기

이 학습지도안은 음악의 창작을 기본목표로 하고 제재곡 "너영나영"의 학습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으로 연결시켜 한 도막 형식의 음악을 창작하는 지도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창작수업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영역인 만큼 창작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곡의 학습을 통하여 리듬에 대한 개념을 세운 뒤, 이를 바탕으로 리듬에 대한 변형을 하여 곡을 만드는 기초를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가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같은 리듬을 사용하여도 민요와는 다른 느낌의 곡을 만들게 하여 학생들이 창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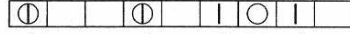
## 2) 학습계획

학습주제	“너영나영” & 창작하기	차시	3차시
학습목표	제재 곡 “너영나영”을 통하여 세마치장단과 9/8박자를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음악 만들기		
학습자료	확대악보, OHP, 음향기기, 장구, 오선지 등		
수업영역	이해, 창작, 감상		
수업단계	학습내용		자료 및 유의점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읽기와 멜로디 익히기</li> <li>· 제재곡을 부르기</li> <li>· 곡의 구성요소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li> <li>· 장단과 박자에 대해 이해하기</li> <li>· 같은 장단을 가진 곡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연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기기</li> <li>· 확대악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 변형하기</li> <li>· 9/8박자 리듬을 살펴보고, 변형리듬 만들기</li> <li>· 한 도막 형식의 8마디 곡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선지</li> </ul>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만든 곡을 직접 연주하고 의도 발표하기</li> <li>· 그 곡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교사가 돕는다.</li> </ul>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가?</li> <li>· 9/8박자와 장단을 잘 이해하여 곡에 사용하였는가?</li> <li>· 곡을 끝까지 완성하였는가?</li> <li>· 의도를 잘 살렸는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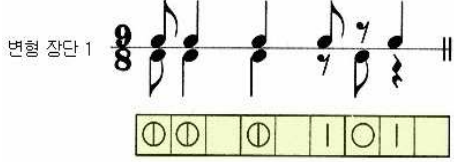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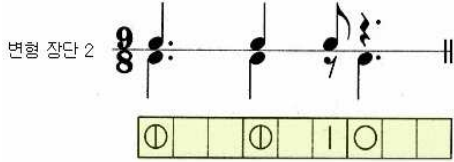



### 3) 본시



#### ① 1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가사 읽기와 멜로디 익히기</p>	<p>· 제재곡과 학습목표, 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 제주도 민요인 “너영나영”에 대해 학습해 보고, 특히 세마치장단과 9/8박자 리듬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한다.</p> <p>· 가사읽기 → 학생들에게 가사를 읽어보게 하고, 가사의 내용에 대해 교사가 설명한다.</p> <p>· 모음을 이용하여 음을 따라하기 → 멜로디와 리듬에 대해 익숙하게 한다. 또한 가사를 붙였을 경우를 생각하여 연습하도록 주의한다.</p>	<p>· 확대악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p>
<p>· 제재곡 부르기</p>	<p>· 연습한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기 → 가사의 내용과 음의 형태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잘 살려서 부른다.</p>	
<p>· 곡의 구성 요소와 특징점에 대해 알기</p>	<p>· 제재곡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 제주민요의 특징과 다른 제주민요들을 들려준다.</p> <p>· 메기고 받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 이는 돌림노래와 비슷한 유사하며, 선창을 하면 그 소리를 받아 후렴을 부르는 것으로, 옹헤야나 진도아리랑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p>	<p>· 메기고 받는 형식의 예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음악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어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을 찾게 한다.</p>

<p>· 장단과 박자에 대해 알기</p>	<p>· 9/8박자는 3박자 계통의 곡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3/2, 3/4 등도 예를 들어 3박자 계통이라는 것을 설명한다.</p> <p>&lt;예시&gt;  </p> <p>→점사분음표가 기본 박으로 되어있어 크게 세 박자로 나뉜다는 것을 설명한다.</p> <p>· 세마치장단에 대해 이해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b>세마치 장단</b></p> <p><b>기본형</b>    부 호:   구 음: 덩 덩 덕 콩 덕</p> <p>→장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구음을 함께 알려주고, 구음을 소리 내면서 손바닥으로 장단을 치게 한다. 장단을 익힌 후에는 장단을 직접 치면서 제재곡을 노래 부르도록 한다.</p>	<p>· 장단을 학습할 때 교사는 장구를 사용하여 장단을 맞추고,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 실제로 장구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p>
<p>· 같은 장단을 가진 곡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연습하기</p>	<p>· 다른 세마치장단의 곡들을 이용하여 연습하기 →세마치장단의 곡인 아리랑, 밀양아리랑, 도라지타령 등의 예를 들어 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르도록 지도한다.</p>	<p>· 확대악보(“자료 2”참고) · 여기서 예로 택한 곡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학습한 곡으로 정한다.</p>

② 2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 장단 변형하기</p>	<p>· 제재곡의 해당 장단인 세마치장단의 변형에 대해 학습하기</p> <p>변형 장단 1</p>  <p>변형 장단 2</p>  <p>→ 변형장단을 학습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기본 장단과 반드시 비교하도록 한다.</p>	<p>· 변형장단을 학습할 때에도 구음을 함께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9/8박자 리듬을 살펴보고, 변형리듬 만들기</p>	<p>· 제재곡 “너영나영”에 나타난 리듬에 대해 알아보기</p> <p>&lt;예시&gt;</p> <p>① </p> <p>② </p> <p>③ </p> <p>→ 예시와 같이 학생들에게 제재곡에 나타난 리듬을 모두 찾아보게 한다.</p>	<p>· 이 때 붙임줄로 인하여 리듬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지도한다.</p>

	<p>· 제재곡에 나타난 9/8박자의 리듬을 변형 시키기 →9/8박자의 기본박을 주고 앞서 제재곡에서 찾았던 리듬을 참고하여 다른 형태의 리듬으로 변형하도록 한다.</p> <p>&lt;예시&gt;</p> 	<p>· 이 부분은 다음의 곡 만들기에 참고할 부분으로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 한 도막 형식의 8마디의 곡 만들기</p>	<p>· 변형했던 리듬에 가락을 붙여 한 도막 형식의 8마디 곡 만들기 →앞서 변형시켰던 리듬들을 참고하여 가락을 붙이도록 하는데,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제재곡 “너영나영”의 첫마디를 시작으로 두고 곡을 만들도록 하는데, 민요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곡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가락을 구성하도록 한다.</p> <p>&lt;예시&gt;</p>  <p>다음의 멜로디로 시작하는 8마디 곡을 만드는데, 앞서 변형시켰던 리듬을 사용하고, 끝 음은 “도”로 끝나도록 한다.</p>	<p>· 음악을 만들 때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여 한 곡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다.</p> <p>· 이러한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창작에 대한 막연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사전에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음악을 창작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p>

③ 3차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만든 곡을 직접 연주하고 의도 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창작한 곡 연주 후 발표하기 →교사는 학생들이 창작한 곡을 연주하고 발표하는데 흥미로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각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여 준비한다.</li> <li>· “자료3”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곡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발표한 곡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변하기 →교사는 이 과정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여 학생 각자가 자신이 창작한 곡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먼저 나서 질문을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등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li> <li>· “자료4”참고</li> </ul>

#### 4) 참고자료

##### ① 자료1

· 제재곡 “너영나영” 악보

## 너영 나영

제주도 민요  
윤명원 편곡

세마치장단(보통 빠르게)  
<메기는 소리>



1. 아 - 침 에 우 - 는 새 는 배 가 고 파 - 울 - 고 요  
 2. 백 - 록 담 울 - 라 갈 때 서 먹 하 던 - 친 - 구 가  
 3. 일 - 락 - 서 - - 산 에 해 는 쪽 떨어 지 - 고 요



저 - 녁 에 우 - 는 새 는 임 이 그 리 워 - - 운 다  
 한 - 라 산 울 - 라 서 니 다정 한 친 구 되 - - 었 네  
 월 - 흘 - 동 - - 령 에 달 이 달 이 솟 - 아 온 다

<받는 소리>



너 - 영 나 - - - 영 두 리 동 실 - 놀 - - 고 요



낮 에 낮 에 나 밤 - 에 밤 에 나 내 사 랑 이 로 - - 구 나

② 자료2

· 같은 장단을 가진 곡 예시

## 도라지타령

세마치 우리 나라 민요

1. 도 라 지 도 - 라지 백 - 도 - 라 - - 지  
 2. 한 두 - 뽕 - 리만 캐 - 어 - 도 - - -

심 - 심 - 산 - 천 - 에 - 백 도 - 라 지 -  
 대 바 구 니 철 - 철 - 철 - 다 념 - 는 다 -

에 헤 - 요 에 헤 - 요 에 헤 - - - 요 - -

에 야 라 난 - - 다 지 화자 - - 좋 - - 다

얼 - 씨 구 좋 - 구 - 나 - 내 사 랑 아 -

③ 자료3

- 이 과정의 수업진행시 교사의 유의점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곡을 본인인 직접 연주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자신이 창작한 곡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임을 이해시키고 자신이 선택한 음악적 효과가 어떠한지, 처음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완성하고 난 후 아쉬운 점등에 대해 판단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④ 자료4

- 교사가 이 과정을 진행할시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유의점

이 수업의 목적은 비판이 아닌 창작의 시도와 완성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에 대한 존중과 자신이 창작한 음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특히 잘 된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창작한 곡을 접하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을 포함하는 나와 다른 점에 대해 선택적 수용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 5) 평가

차시	평가내용	평가방법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음 음계를 이해하였는가?</li> <li>· 장단에 대해 이해하였는가?</li> <li>·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는가?</li> </ul>	관찰법 질문법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하는 태도가 적극적인가?</li> <li>· 진지한 자세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li> </ul>	관찰법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창작한 곡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li> <li>· 제한점을 잘 반영하여 창작하였는가?</li> <li>· 곡이 독창적인가?</li> <li>· 자신의 의도를 잘 살렸는가?</li> <li>· 곡을 끝까지 완성하였는가?</li> <li>· 다른 사람이 창작한 곡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li> </ul>	관찰법 자기평가 토론

## 6) 정리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가 수업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을 들었는가?”, “계획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가장 잘 되었는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언어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시킨다.<sup>14)</sup>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창작한 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직접 설명하고 연주할 수 있어야한다. 그것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14) 석문주(1996), 앞글, p.261

게 토론하여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다른 학생들이 창작한 곡과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수업내용 중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수용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한다.

## V. 결 론

세계가 점점 상호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 주장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장점을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살려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양악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문화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정서와 특징을 담은 우리만의 문화를 내실화 하면 이것이 곧 세계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점점 모든 분야에 있어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곧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음악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문화는 교육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투자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시기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히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인 국악교육과 음악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안을 만들었다. 각각의 학습지도안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에서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학습주제는 이해와 활동영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택하였으며,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총 9차시의 학습지도안을 만들면서 얻은 결론으로 국악교육에 대한 제안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악교육을 할 때에는 기보법에 있어서 가로 정간보를 사용하는 등의 개량된 국악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국악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악곡의 종류는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 학생들에게 국악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셋째, 양악에 대한 학습을 할 때에도 국악과 비슷한 부분과는 적절히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악에 대해 어렵고 지루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전에, 먼저 쉽고 흥미로운 가벼운 음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과서에서의 국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내용 면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악교육에 대한 방법과 인식 면에서의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방법을 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시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학습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하여 졌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학교밖에 나가서도 음악, 특히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체육, 음악, 미술」. 서울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9.
-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12), 1998.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기 : 민요, 단소, 장구, 무용, 감상」. 서울 : 국립국악원, 1990.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 기악, 창작, 감상」. 서울 : 국립국악원, 2002.
- 문영일. 「초·중·고 음악교사를 위한 음악교수법」. 서울 : 도서출판 청우, 1990.
- 민은기·김대호.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 연구소, 2000.
- 오지선. 「한국근대음악교육」. 서울 : 예술, 2003.
- 유덕희. 「세계음악교육사」. 서울 : 학문사, 1998.
-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서울 : 배영사, 1979.
- 이성천.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 도서출판 풍남, 1991.
- 이철구·이양. 「심리학으로 본 음악 음악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서울 : 교육부, 2001

Hoffer. Charles R.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Charles Leonhaed & Robert W. House.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 2. 국내외 정기 간행물

석문주. “음악과의 핵심과제와 전략”. 「교육마당21」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통권235호

장기범. “음악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예제”. 「열린교육연구」 (서울 : 한국열린교육학회, 1999), 제7집 제1호

## 3. 논문

김서향. ‘중학교 1학년 음악과 창작영역에서의 수행평가 적용 방안 : 포트폴리오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노종락. ‘서양음악과 국악교육의 내용분석 :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명지영.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5종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 전통음악 가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박은서. ‘음악 교육과정 분석 연구 : 중학교 1학년 제6, 7차 교육과정의 국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서윤주. ‘전통악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국악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안영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용

인대학교, 2002

우수향. '제7차 중등음악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국악분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이내경.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수업 내용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국악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정무용. '초등학교 전통음악의 창작지도 방안 : 정간보와 2선보, 3선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정혜정.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ABSTRACT**

**The study about learning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music  
for the systematical education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to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Yhim, Yang Suk**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eaching plan that is attempted variable education activities to help the systematical education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to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Especially it is caused to drive the comprehension and interest through comparing the Korean classical music and the Western music. At first, it is considered the education of the Korean music and the Korean classical music from 1906, at which the musical education is started in Korea, to 1997, at which the 7-th musical education process is initialized. It is also examined a teaching plan of the musical education process to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The considered materials include variable methods for the systematical education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Based on the considered materials, it is

proposed a novel teaching plan composed of three steps that has a characteristics to drive the comprehension and interest through comparing the Korean classical music and the Western music and extracting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e teaching plan of 3 different kinds. It is consisted the contents that is coaching study about Korean instrument with comparing with Western instrument, "Jung-gan-bo" of Korean music notation comparing with staff notation and creating music through studying of "Nou-young-na-young".

In this proposed teaching plan, it is explained the method to be used efficiently in the real education field by using the integrated direction of variable education activities and areas, and exemplifying a piece of music. So, it is achieved the purpose to give students interests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and to let them enjoy the Korean classical music in a daily life.

In the proposed research, it is concluded three following aspects. Firstly, the students must be familiar with the Korean classical music by means of the advanced element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for the examples, the education plan to use the horizontal Jung-gan-bo to explain the musical notation.

At the second, an instructor gives an opportunity to lean the diversity contained in the Korean classical music. In order to this, an instructor has to deal the musical pieces according th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musical education process.

Finally, an instructor has to attend a musical lecture by comparing the

Korean classical music with the Western music. So, the students cannot help feeling the good-things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and they freely and naturally enjoy the Korean classical music in a daily life.

Following works will focuss on the detailed and variable example of showing the relation ship between the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classical music.